

■ 2026년도 문학레지던시사업 하반기 입주작가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도 문학레지던시사업 하반기 입주작가 심의
- 회의일시 : 2026년 6월 5일(금) 14:00~16:00
- 회의장소 : 온라인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고봉준, 구효서, 김지은, 장인수, 정대훈, 지영주

2026 문학레지던시 하반기 입주작가 공모에는 총 101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프린스호텔 32건, 협성마리나 G7 39건, 남이섬 호텔정관루 30건이다. 그중 행정결격 6건(서울프린스호텔 3건, 협성마리나 G7 3건)으로 최종 95건이 심의 대상이 되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서울프린스호텔 6건, 협성 마리나 G7 6건, 남이섬 호텔정관루 2건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공모 사업은 작가에게 작품 창작을 위한 집필 공간을 제공하여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창작에 집중하고 우수한 작품을 집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후원기업 역시 예술후원 활동을 통해 예술 현장의 발전을 돕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을 묶은 앤솔로지가 간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축적되고 있고, 그 여파인지 사업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심의는 창작 역량 및 실적(50%), 활동 계획의 충실성(30%), 파급효과 및 확산성(20%)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창작 역량 및 실적에서는 발간, 전문 매체 발표, 그 외의 문학 활동 등의 입체성을 중요하게 보았고 출판 계약 여부, 수상 경력 등을 참고 사항으로 하였다. 활동 계획의 충실성에서는 집필 계획의 구체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다. 지원 계획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얼마나 성의 있게 작성하였는지 살폈다. 파급효과 및 확산성에서는 공공성과 대중성을 함께 고려했다.

창작 역량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다. 결국 작가의 인지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인지도를 다룬다면 그 역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발간이나 전문 매체 발표, 그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었다.

작가가 집필 계획을 세세하게 밝히는 일의 어려움은 익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서의 항목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도 그 충실성을 따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모순이라고 할 만한 일이다. 다행히 자기의 테마, 인물과 사건, 간단한 줄거리, 의의 등을 정성껏 작성해주신 분이 많았다.

이제 자기의 작업 성과를 어떻게 많은 사람과 공유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작가의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자기 작품 세계의 깊이를 심화하기 위해 골방에 틀어박혀 창작에 매진하는 작가도 필요하지만, 자기의 세계를 더 넓히기 위해 독자들 사이로 나아가는 작가도 필요하다. 작가는 매우 특별한 개성의 소유자지만, 그 개성의 지분은 작가 자신에게 온전

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거기에는 사회의 역할도 있다. 작가는 사회에서 받은 것을 사회로 돌려주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이 문학레지던시 사업에 주목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젊은 작가의 참여가 저조한 감이 있다. 젊은 작가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기회비용의 크기에 대해 새삼 생각해보게 됐다. 현재 후원기업에서는 소설이나 아동문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프린스호텔에서는 모집 분야를 순문학으로서 소설에 국한하고 있고, 협성마리나 G7에서는 아동·청소년 문학을 포함한 소설에 한정하고 있다. 또 남이섬 호텔정관루에서는 순문학의 모든 분야를 모집하되 아동문학을 우대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장르 역시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문학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길과 후원기업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길이 다를 리 없다.

지원 작가의 숫자에 비해 후원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의미 있는 작품이 출간되고 그 성과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하기를 바란다. 또 예술 현장과 후원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더 늘어났으면 한다. 우리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후원해 주시는 기업과 좋은 작품의 집필을 위해 분투하시는 지원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심의위원 일동